

## 제60회 합격자 백우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14학번 백우준  
공부기간 2020.09~2023.07 약 2년 10개월

키워드: 60기 차석. 59기 고득점(회로 과락)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60회차 변리사 시험에 차석(평균 60.22점/ 커트라인 54.33점  
특허 59.33점 민사소송법 64.33점 상표법 57점 회로이론 70점)으로 합격한 백우준  
입니다.

수험생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공부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시로 합격하  
긴 했지만 기득 때도 고득점(평균 55.22점 평균 58.88점 특허 54.33점 민사소송법  
70.66점 상표법 51.66점 회로이론 45점 과락)을 받은 경험이 있어 저에게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합격 수기이므로 다른 수험생분들께서도 참고하시어 수험 생활에 도  
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기를 작성합니다.

특히 기득 당시 동차의 다소 낮은 점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득점을 받았으며 삼시에는 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  
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I.수험기간 및 점수

1. 1차 시험(2020.09~2021.02) 평균 80.83점 / 커트라인 76.66점 합격

산업재산권법 90점 민법개론 77.5점 자연과학개론 75점

2. 2차 시험 동차(2021.02~2021.07) 평균 50.55점 / 커트라인 54.77점 불합격

특허법 55.33점(18p) 민사소송법 48.66점(19p) 상표법 47.66점(18p) 회로이론 61.33점

3. 2차 시험 기득(2021.10~2022.07) 평균 58.88점 / 커트라인 55.22점 선택과목 과  
락 불합격

특허법 54.33점(19p) 민사소송법 70.66점(21p) 상표법 51.66점(20p) 회로이론 45점

4. 1차 시험(2022.10~2023.02) 평균 77.5점 / 커트라인 70.83점 합격

산업재산권법 80점 민법개론 75점 자연과학개론 77.5점

5. 2차 시험 3시(2023.03~2023.07) 평균 60.22점 / 커트라인 54.33점 차석 합격

특허법 59.33점(20p) 민사소송법 64.33점(22p) 상표법 57점(20p) 회로이론 70점

### Ⅲ. 시기별 및 과목별 공부방법

#### 1. 첫 번째 1차시험 (2020.09 ~ 2021.02)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민법	민법 기본 강의	기본서 1회독	기본서 1회독  객관식 1회독	기본서 2회독  객관식 1회독	객관식 2회독  한빛 400제	최신판례 강의  한빛 400제
특허법		특허 기본 강의	특허 기본 서 1회독  객관식 1회독	특허 기본 서 1회독  객관식 1회독	특허 기본 서 2회독  객관식 2회독	특허 객관 식 3회독  3법 비교 문제
상표법			상표 기본 강의	상표 기본 서 회독	상표 객관 식	상표 기출문제
디자인보호법				디보 기본 강의	디보 회독 기출문제	디보 기출문제
자연과학				물리, 화 학, 지구 기본 강의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출문제  생물 기본 강의	기출문제 회독

9월 민법 기본강의 12시간 수강

10월 민법 기본서 회독 8시간 / 특허법 기본강의 4시간 수강

11월 민법 기본서 회독 5시간 객관식 회독 3시간/ 특허 기본서 회독 2시간 / 상표  
기본강의 2시간 수강

12월 민법 기본서 회독 2시간 객관식 회독 2시간/ 특허 기본서 및 객관식 회독 3시  
간/ 상표 기본서 회독 2시간/ 디보 기본강의 2시간

OR 민법 기본서 회독 2시간/ 특허 기본서 및 객관식 회독 2시간/ 상표 회독 1시간  
/ 디보 기본서 회독 2시간/ 지구과학 -> 화학 -> 물리 2시간

1월 민법 4시간/ 특허 2시간/ 상표, 디자인 2시간/ 자연과학 4시간

## 2월 부족부분 보충

### (1) 들어가며

저는 1차 시험의 진입을 다른 수험생에 비해 그다지 빠르게 하지 않아 최대한 단기간에 합격점수까지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이라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도 않아 어려웠기에 제 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민법

저는 민법의 정석(이상윤 저)을 기본서로 정하였으며, 기본강의 역시 이상윤 강사님의 강의를 주로 들었습니다. 늦게 진입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기본강의를 무리하게 수강하였는데 이는 1차시험을 두 번 치르는 가운데 가장 패착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9월 한달안에 기본강의를 다 수강하고자 하루에 8~11개의 강의를 거의 2배속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습은 거의 할 수 없어 나중에 기본서 회독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후에 2번째 1차시험을 위한 민법 공부 시에도 다시 한번 기본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득 안에 시험이 합격할 수 있다고 자만한 나머지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습이 전혀 없이 인강을 빠른 배속으로 수강한 나머지, 기본서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식 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은 이상윤 강사님 저서의 홀수 번째 문제만 풀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았으나 기출문제 400제를 외우다시피 풀었더니 이해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최신판례에 나오는 개념은 기본서를 최소 3회독 이상 추가로 하였고,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면서 틀리는 부분은 한글 파일로 따로 정리해두어 걸어 다닐때나 복습할 때 한 번씩 읽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 (2) 특허법

특허법은 2차 시험에서도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에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급하다고 판단해 가장 수강시간이 짧은 공경식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으나, 기본서는 임병웅 강사님의 리담 특허법으로 회독하였습니다. 기본강의를 강의하시는 강사님과 기본서를 만드신 강사님을 달리 하다보니, 저처럼 시간이 부족한 1차 수

험생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객관식 역시 임병웅 강사님의 저서를 활용했고 추후 최근 12년 기출문제 모음을 거의 외우다시피 풀었습니다.

스터디카페를 오가는 동안 조문을 계속 읽었고,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법은 조문에서 한 단어를 달리 내는 등의 문제가 많았으므로 이를 모두 체크해놓고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 (3) 상표법

상표법은 박종태 강사님의 기본서와 강의를 수강하였고 객관식 역시 박종태 강사님의 저서로 풀었습니다.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조문 문제는 따로 표시를 해두었고, 기출문제를 외우다시피 공부하였습니다.

### (4) 디자인보호법

특허법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법 간의 차이점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공경식 강사님의 3법 비교하시는 책을 이용해 헷갈리는 부분만 체크하여 표시해 두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법을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암기에 도움이 될 정도만 활용해야지 3법 비교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강사님의 기본강의, 기본서, 객관식을 활용하였고 객관식만 여러 차례 복습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자연과학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1차 시험에서도 저는 민법 점수가 낮고 자연과학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민법 기본강의를 지나치게 빨리 수강한 탓에 민법 문제를 풀었을 때 답답함이 들쭉날쭉해 자연과학에서 점수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구과학은 박준희 강사님, 물리는 변상규 강사님, 화학은 서형석 강사님, 생물은 이영렬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지구과학은 9~10개, 생물과 물리는 7개 이상, 화학은 난이도가 높아 5개를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물리, 화학은 주요한 공식과 개념은 따로 정리해두고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반

복했습니다. 생물의 경우 저는 마지막 한달동안 공부했습니다. 노베이스였지만 단기간 내에 암기하고 큰 흐름을 익혀 소거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6) 결론

1차 시험을 단기간 내에 준비해야 하다보니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이다보니 눈에 바르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처럼 1차 시험 준비 기간이 길지 않으신 수험생 분들은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점점 눈에 익은 선지들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허와 상표법은 큰 흐름과 개념의 위치를 간단하게라도 복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의 위치란 먼저 목차의 준위를 의미하며 또한 제도나 개념의 의의, 취지 등을 의미하여 왜 그 제도와 개념이 탄생했는지 파악하면 2차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동차 (2021.03~2021.07)

	3월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통합 기본강의	사례 기본강의	기초 gs	실전 gs	실전 gs
특허법	박지환 기초 gs		박지환 실전 gs		한승준 실전 gs
상표법		최지환 기초 gs		최지환 실전 gs	실전gs 연습
회로이론		양진목 기본 강의	기본서 회독	기본서 문제 기출110제	기출110제

###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 동차를 들어가 통합 기본강의부터 수강했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채로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동차생들과 비슷하게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특허, 상표 gs를 배치하였습니다.

암기와 필속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터라 동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19페이지, 특허와 상표법은 18페이지 가량 기재하였기에 속으로는 민사소송법이 60점 이

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었지만 50점도 넘지 못하며 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득점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기득 공부방법 부분에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 (2) 민사소송법

이창한 강사님의 통합, 사례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이창한 강사님의 커리큘럼  
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기본서와 사례집 회독  
을 줄이고 핸드북 회독을 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암  
기노트를 위주로 공부했는데 암기노트의 목차와 안의 내용은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  
력했습니다.

이때 저는 추후에 기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만든 두문자를 활용해  
암기하였습니다. 암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에 암기된 목차 내에서는 6월  
gs에서는 답안지의 양을 16쪽 정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례집을 통해 체계적인 목차를 암기하거나 기본서 회독을 통해 내용을 체  
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목차를 암  
기하여 양을 채우는 것에만 치중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공부  
방법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3) 특허법 및 상표법

저는 특허법은 박지환 강사님의 기초, 실전 gs를 수강하였고, 상표법은 최지환 강  
사님의 기초, 실전 gs를 수강하였습니다. 중요한 개념 예를 들어 간접침해 또는 불  
사용취소심판 등의 경우 논점 누락의 우려가 있어 모든 목차의 두문자를 만들었고  
각 목차 내의 판례의 두문자도 암기하였습니다. 기득 당시의 공부방법에서 서술하  
겠으나 이러한 암기는 추후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5) 회로이론

저는 양진목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었으며 110제 기출문제를 주로 풀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빠르게 수강하고 기본서 1회독을 한 후 110제 기출문제를 3회독하였고  
이때 틀린 문제를 위주로 마지막에 복습하였습니다. gs문제는 시간이 부족하여 문  
제를 보고 풀이를 예상한 후 답안을 확인하며 공부하였습니다.

### 3. 기록

#### (1) 들어가며 – 동차 준비 당시의 패착

동차 시험 준비 당시 매일 12~13시간을 공부하고, 5월 말부터 gs에서 16페이지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실전gs에서 민사소송법은 50점 후반, 특허법과 상표법에서도 상위 4~50%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을 볼 때에도 각 과목을 18~19 페이지를 작성하며 어느 정도 고득점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4점 가량의 큰 점수차로 불합격하였고, 특히 민사소송법이 50점이 넘지 않아 꽤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답안지 열람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부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간단히 서술한 후 각 과목별로 변경된 공부방법을 작성하겠습니다.

##### 1) 기계적인 암기

논점이 되는 목차가 모두 들어가 있더라도,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 목차들이 중구난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을 채우기 위한 기계적 암기로 보일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2) 단조로운 목차

목차의 제목만으로는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없어 전체적인 인상만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 3)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움

답과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문장에 대해 강조가 부족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맞추었다는 인상을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 (2) 변경된 공부방법

2차 시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법학적 글쓰기 시험'이라는 점에 주안을 두어 공부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법학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논리'가 중요하고 '시험'이기에 해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논리적 글쓰기 – 각 목차간 그리고 각 문장간 연결성

보통 수험생들 대부분 문제풀이에 있어서 논점누락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물론 논점누락이 되는 경우 크게 감점되기에 논점 누락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논점이 되는 목차가 모두 포함되더라도 점수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목차간의 연결성 그리고 문장간의 연결성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똑같은 목차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목차의 배치에 따라 글의 논지가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제가 되는 목차를 초반에, 문제해결과 관련된 목차를 후반에 기재하는 것이 깔끔해보입니다.

이러한 목차의 순위와 배치를 짧은 시간안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암기가 아닌, 각 개념의 '의의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과 예외 구조'를 활용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나 개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적인 제도와 개념의 경우 원칙이 되는 상황을 상정한 후, 그 문제점을 드러내어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필요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칙을 먼저 드러내고 예외의 필요성을 주장한 후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서술하는 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하여 특허, 상표법의 많은 개념과 제도가 의의와 취지 아래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로 목차를 작성하는 경우와는 인상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목차간의 연결성을 고려한 이후 문장간의 연결성을 놓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 목차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장은 많게는 4~6문장이 됩니다. 이때 필요 없는 문장은 과감히 덜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문제를 푼 후에 각 목차에 기재된 문장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고 문장 사이에 필요한 문장은 없는지, 불필요한 문장이 기재된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채점자가 답안지를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생각을 바꾸어 짧은 시간안에 채점자가 목차와 그 안의 문장의 초반부만을 보더라도 해당 목차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목차의 중요성

짧은 시간 내에 채점이 이뤄지는 시험의 특성상 목차의 흐름만으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하여, 판례나 학설 등의 추상적인 목차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목차의 제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목차의 연결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해당 목차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사례집이나 기본서를 통해 암기하는 목차의 순서와 제목은 당연히 암기하여야 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풀이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해당 목차를 작성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문제풀이라고 생각합니다.

## 3) 논점 정리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논리적 글쓰기를 위해 '논점정리'에서 앞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답안의 요약을 기재하였으며 결론 부분에 논점정리에서 기재한 해결하려는 내용에 대해 답을 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처음과 끝만 읽더라도 문제를 푼 느낌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제의 요약을 논점 정리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유를 고려하여 핵심 개념의 의의 및 취지, 판례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재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필요한 것에 대한 대답 - 특허, 상표법

민사소송법에 비해 특허법, 특히 상표법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서의 목차가 아닌 좀 더 그 문제에 맞는 목차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공부 방법은 추후 기재하겠습니다.

## 5) 기타

마지막으로 보기 좋은 답안지가 채점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체 뿐만 아니라 '들여쓰기'의 방식에도 좀 더 강조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I. 이나 1.의 경우 답안지 제일 왼쪽에 붙여쓰고, 본문의 경우 한칸 여백이 있는 선에 맞춰 쓰다보니, 그 아래 준위의 (1) 등의 목차는 본문보다 들여쓰기를 하여 좀 더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 결론'(판결 또는 심결의 종류 등)이나 해당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를 들어 60회차 민사소송법의 1번의 경우 '모두 인용될 수 없어'라는 판례의 핵심 문구 등)에 작은따옴표를 통해 보다 강조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인상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 **(2) 민사소송법**

### **1) 두문자**

동차 때 정리한 두문자 표에 더해 계속해서 암기할 두문자를 추가했습니다. 두문자는 판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 할 목차의 순서나 해당 목차에 포함된 여러 판례를 암기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암기노트와 사례집**

기득을 준비하는 동안 동차 준비 당시 소홀히 했던 기본서 회독과 암기노트에 누락된 기본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누락된 판례를 보충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개념을 추가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동차 준비 당시 소홀히 했던 사례집 회독을 늘렸습니다. 사례집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해 목차의 구성, 연결, 문장의 연결성과 핵심 문구와 최종 결론간의 연결 등을 바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사례집을 위의 방법으로 공부한 것이 기득 시험에서 70점이 넘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3) gs 선택**

문제 풀이에 더욱 능동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답안의 스타일을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창한 강사님과 객준형 강사님의 답안 스타일을 혼합하였습니다. 이창한 강사님의 경우 굉장히 논리적인 답안을 구사하시고 여기에 객준형 강사님의 문장 연결이나 목차 제목 등을 차용하는 방안으로 저만의 답안 작성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 **4) 기출문제**

사례집을 통해 모두 풀어볼 수 있지만, 변리사 기출문제를 모아서 보는 기회를

통해 변리사 시험에서 자주 묻는 개념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5) 오답노트**

기득에 들어 가장 보완한 공부방법은 오답노트입니다. 노트북 또는 아이패드를 통해 gs에서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별로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문구, 자세히 써야 할 경우 들어가면 좋을 내용, 공부를 하면서 누락된 개념 등을 구별하여 정리해두고 시험 전 1달간 복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복습할 당시에는 문제별 오답노트를 개념별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상표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3) 특허법**

### **1) 두문자 - 생략**

### **2) 기본서 및 사례집, 기본강의 수강**

기득을 준비하는 약 10개월 동안에는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저는 박형준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보다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사님마다 강조하는 개념의 깊이나 넓이가 다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이에서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나만의 답안지 작성 방법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판례집과 사례집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허법의 경우 사례집의 활용을 통해 빈출 개념이나 문제 유형에 대해 익숙해지고 짧은 시간안에 목차를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gs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례집을 한달 반 정도 회독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박지환, 박형준 강사님의 사례집을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 **3) gs선택**

특허법의 경우 특허 답안 작성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박지환, 박형준, 한승준 강사님의 답안지를 모두 참조하였습니다. 박지환 강사님의 경우 목차간의 연결성을 연습할 수 있었고, 박형준 강사님의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답안 목차를 연습할 수 있었고, 한승준 강사님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위 강사님들

의 상반적인 스타일의 절충적인 답안 작성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답안 작성이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한 목차의 배치와 연결성 모두 중요하므로 균형 잡힌 답안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기출문제**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빈출유형과 이에 대한 풀이를 연습할 경우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빈출유형의 경우 왜 빈출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해당 개념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빈출된다면, 침해여부 판단에 앞서 실시독립의 원칙이 핵심임을 파악하고, 목차의 배치 역시 실시행위별로 나누어 침해여부 판단할 경우 보다 논리적인 답안 작성일 것입니다.

#### **5) 오답노트 - 생략**

#### **(4) 상표법**

##### **1) 두문자 - 생략**

##### **2) 기본서 및 사례집**

상표법은 별도로 기본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표법의 경우 판례집과 사례집을 모두 활용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답안작성을 연습하였습니다. 판례집은 1달간 회독하고 사안포섭할 부분이 많거나 핵심적인 판례는 따로 발췌하여 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사례집과 판례집은 모두 최지환 강사님 저서를 활용하였습니다.

##### **3) gs선택**

상표법의 경우 최지환 강사님과 한경훈 강사님의 답안 스타일을 참조하였습니다. 최지환 강사님의 사안포섭 방식과 한경훈 강사님의 목차간 논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참조하였습니다. 상표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문제 해결이 보다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에 기본 전제에 비해 탄탄한 사안포섭이 중요시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목차로 현출해야 할 개념과 결론에 간단히 녹여낼 개념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 포섭하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 누락되는 개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19조의 모든 판례를 목차별로 두문자로 암기하여 해당 문제에서는 두문자에서 현출된 목차 중 필요한 것만 선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상표에서 문제마다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는 최대한 비슷한 내용 또는 개념의 목차는 묶어서 결론을 간단히 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나열식 목차 또는 문장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은 한 번에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목차의 군집화(classification)을 해보고 가장 최적의 목차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표법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답안도 논리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 **4) 기출문제 - 생략**

#### **5) 오답노트 - 생략**

### **(5) 회로이론**

2달간 기본서를 회독하고 이후에는 gs문제와 110제 문제풀이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때 3법과의 시간분배에 있어 민법 7시간, 특허 및 상표 3~4시간, 회로이론을 1~2시간을 잡고 공부하였는데 안일하게 공부한 것이 과락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점 방식 등의 외부 원인을 찾을수도 있겠지만 수험생 분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기득의 경우 선택과목에서도 과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방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4. 2번째 1차 시험**

체감상으로는 첫 번째 1차 시험때보다도 촉박한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와 상표가 어느정도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2차 시험과는 문제화되는 부분이 상이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식 중 자주 틀렸던 문제와 기출문제 선지 그리고 조문을 주로 확인하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첫 번째 1차 시험때도 이해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김동진 강사님의 기본강의부터 다시 수강하였습니다. 위험부담이 큰 선택이었고 점수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또한 김동진 강사님의 저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 더욱 시간이 부족하여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였고 개념의 경우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복습하였습니다.

## 5. 삼시

기본적으로 기득 당시의 공부 방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기출문제 분석과 사례집 공부는 줄이고 gs 답안 작성과 오답노트 작성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술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 IV. 수험생활 일반

### 1. 스터디 활용

#### (1) 생활스터디

고시는 기본적으로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상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렇다고 친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해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친한 친구와 학원에서 함께 공부를 할 때 의지도 하지만 공부할 때는 서로 말없이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기득 때부터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자취를 하면서 관정도서관에서 생활 스터디를 구해 하루 종일 같은 테이블에서 앉아 공부를 하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2) 답안 작성 스터디

이는 동차 5월때부터 시작하였고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의 답안지를 작성하였고 의무감을 부여했습니다. 보통 6명 정도를 구성하여 각자 가능한 날짜를 투표하고 3명 이상 모인 날짜에 답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기득 당시에는 공부방법의 변경을 위해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답안 작성 스터디에서 서로 피드백을 준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남의 답안지, 남이 보는 내 답안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 2. 공부 시간

동차 준비 당시에는 계속 촉박한 시간에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하였습니다. 보통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약간은 유동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동차 당시에는 2주일 동안 반나절 이상은 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득 이후에는 일주일에 쉬는 날을 크게 정하지 않았고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든 날에는 쉬었으며 일주일에 하루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주일 평균 공부시간은 최소한 65시간이 되도록 하였으나 넘지 않더라도 자극은 받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주일간 공부시간이 적더라도 다음 주 공부시간을 3시간씩 늘려가며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험 1달 전 동안에는 80~90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평균적으로 민사소송법이 7시간, 특허 및 상표법이 3~4시간, 회로이론이 1~2시간이 되도록 하루 공부시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3. 시간 관리

일주일 중 하루 또는 반나절을 쉴 때에는 최대한 공부 생각을 하지 않고 확실히 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친구를 만나다거나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 쉴 때는 주로 산책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냥 산책을 하지 않고 암기노트나 판례집, 오답노트, gs 모범답안을 들고 읽으면서 산책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집을 가는 길에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웬만하면 계속해서 뭐든지 들고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읽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짧은 시간 내에 목차를 잡는다거나 문장을 구성할 때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4. 멘탈 관리

변리사를 준비하면서 기득에서 법 과목에서 고득점, 특히 민사소송법을 수석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후 선택과목에서 과락하여 불합격을 확인하였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슬픔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불합격한 날 바로 서울대 입구역으로 다시 올라가 자취방을 계약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차와 기득을 준비하는 동안 우선 바쁘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는 것이나 공부방법을 적용시키는 것들이 재밌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재밌다고 느껴 별다른 멘탈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득에서 불합격한 후 삼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gs 등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공부하는 동안 집중이 되지 않는다거나 등의 부정적인 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하루 판례집을 읽으며 하나 더 배운 개념이 있다거나 그

동안 미뤄왔던 오답노트를 한 줄이라도 더 정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V.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번 회차에도 답안지 열람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에 맞춰 구체적인 합격수기를 적을까 고민하였지만, 좀 더 추상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합격수기를 읽으시는 수험생 분들께서 본인에 맞는 답안지 작성방법을 고민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 등을 통해 편하게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리사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든 요소일 수 있지만, 사회의 흐름에서 정체되어 있는 나와는 달리 무언가 이뤄나가는 타인과 비교될 때가 가장 힘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였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7개의 운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3개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차근차근 해내면 어느 순간 시험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에는 그동안 열심히 한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시험을 보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늘이 내려줄 것입니다. 결과에 순응하되 그 결과에 스스로 후회가 없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저를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공부한 동희, 준수 그리고 스터디원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친척분들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